

📍 전 주민 긴급생활지원금 📍 마스크 100만장 배부 📍 착한 임대인 운동 📍 철통 방역

위기상황서 진가 발휘한 남구의 ‘선제적 리더십’

남구 주민 1인당 5만원씩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진

연매출 3억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별도 지원
 행정력 집중 ‘골목상권 부양 시책’ 신속 추진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남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주민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주민 27만2000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135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급 형태와 시기는 현금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전 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함께 남구는 부산시와 함께 관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 씩 긴급민생지원금도 지원한다. 해택 대상은 3월 24일 현재 부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되며, 소요 예산은 부산시 80%, 남구 20%씩 부담한다.

한편 남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컨트롤타워로 남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비상경제대책추진반을 확대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발굴 △관내 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공공부문 소비 촉진 등 종합적 대응을 전개한다. 그 일환으로 재정 신속집행, 착한 임대인 운동 추진, 2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 비즈니스서비스산업 특화구역 지원, 남구청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상가안심존 운영 등 다양한 ‘골목상권 부양 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남구 전 주민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기 위해 남구청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 분유 재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마스크 100만장 전 주민 배부

해외로 눈돌려 확보한 첫 사례 쾌거

‘마스크 5부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남구가 마스크 100만장을 긴급 확보해 28만 전 주민에게 3장씩 무료로 전달했다.

남구는 3월초 정부가 공적마스크 물량을 국내 일일 생산량의 80%까지 늘림에 따라 자치단체로서 마스크를 현실적으로 구할 길이 없게 되자 그나마 여력이 있는 해외 시장으로 눈길을 돌렸다. 때 마침 정부가 마스크 대란

타개책으로 마스크를 품목허가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과 수입 신고 통관 절차를 크게 개선했다. 남구는 예비비를 사용해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100만장을 수입해 들여올 수 있었다.

지난 3월 13일 인천항을 거쳐 대형 차량으로 백운포제육공원에서 내려 받은 마스크 100만장은 다음날 구청 전 직원과 봉반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해 주민 한 사람당 3장씩 포장작업을 가졌다. 분류된 마스크는 곧바로 통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통해 관내 전 세대에 직접 무상으로 전달됐다. 틈새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남구의 행정에 언론의 호평이 이어졌고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로부터 마스크 수입방법과 절차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3월초 남구청장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마스크 국가배급제 시행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607-4646

획기적인 코로나19 검체 채취 장비 남구보건소 의사·남구청 공동 개발

〈안여현 의사사무관〉

‘이동형 음압채담부스’ 고안

남구청 제작비용 전액 부담

남구보건소 의사가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검체 채취를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동형 음압 채담 부스’를 개발했다. 제작에 따른 비용은 남구청이 전액 부담했다. 전 세계가 극한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 이어 국내를 넘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전역에 보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발명자는 남구보건소 안여현(41) 의사사무관이다. 기존 음압텐트는 의료진이 보호복을 입고 의심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검체를 채취해야 해 감염 위험이 높고 텐트를 소독한 뒤 다음 환자를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또 의심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이 계속해서 보호복을 갈아입는 불편이 있다.

하지만 안 사무관이 고안한 ‘이동형 음압채담부스’는 이런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했다. 공중전화 박스를 닮은 유리 부스에 의심 환자만 들어가고 의료진은 밖에서 구멍을 통해 검체(객담)를 채취하기 때문에 환자와의 접촉이 거의 없어 감염 우려가 없고 의료진은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고 일회용 장갑만 바꿔가며 검사를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 제작 비용도 1000만원 정



남구보건소 안여현 의사사무관이 자신이 개발한 ‘이동형 음압채담부스’의 사용법을 시연하고 있다.

도로 기존 음압텐트에 비해 1/3에 불과하다. 안 사무관은 평소 병원 내 감염관리 문제를 고민하다 부스 설계도를 직접 그렸고 남구청이 안 사무관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가능했다. 현재 이동형 검체 부스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남구가 불 지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일로

관내 65명 271개 점포 동참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남구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소리 없이 확산되고 있다.

남구는 코로나19 사태의 위기감이 정점에 오른 3월초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과 동참을 간곡하게 호소해 왔다. 건물주와 임대인의 공감을 얻기 위해 부산남구신문 3월호에 호소문을 게재하고 관내 주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14곳에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달았다.

남구의 이런 노력에 답하듯 4월 1일 기준으로 관내 65명의 건물주 및 임대인들이 271개 점포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WS퀘어 상가건물에 점포 103개를 보유한 아이에스동서는 5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의 절반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대연SK유흥상가관리단은 점포 33곳의 임대료를 두 달간 20% 낮춰 주기로 했다. 또 부산 지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에 드는 경성·부경대 건물주들도 단제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했다.

남구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더 많은 건물주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미담 사례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준 임대인 및 건물주 전원에게 남구청장 명의의 감사서신을 전달했다.

※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물주는 남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연락 바랍니다. ☎607-4476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4월 1일 기준

남구 3명(2명 완치)

부산 119명(83명 완치)

전국 9887명(5567명 완치)

■ 모바일 부산남구신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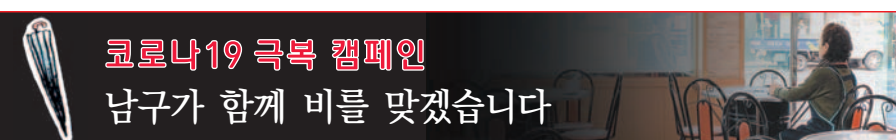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부산 남구청 채널에 접속되며, 채널 추가하면 모바일 신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남구 코로나19 긴급 추경 957억원 확정

남구가 코로나19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 957억 원을 확정했다.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추경 편성에 맞춘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4,183억원 대비 22.9%가 증액돼 코로나19로 인한 파폐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안전환경 조성 등에 집중 투입된다. 이번 2020년 남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9일 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607-4022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남구가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	3면	남구의 맛집 & 멋집	5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4면	코로나19 이기는 미담	6면

고시원·쪽방 사는 비주택거주자 임대주택 이주·정착 지원 돕는다

남구, 정부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

남구가 고시원·쪽방·여인숙 등 마땅한 주거공간이 없는 비주택 거주 주민의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비·상·구

(비주택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남구 프로젝트)사업을 시작한다.

남구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통장 등

으로 구성된 주거지원조사팀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임대주택 이주수요자를 발굴했고, 올해 국토교통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 지난 12일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전국 11곳 중 부산에서는 남구가 유일하다.

이 사업은 주거복지 정보에 어둡거나 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이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주거상향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남구는 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여량을 활용해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이송상담소 운영, 임대주택 물색 및 이사·청소지원, 이주 전 임시거처 제공, 이주 후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돕는다. 노후 고시원과 여인숙이 밀집한 대연동과 해방 귀향자 및 전쟁 피란민의 삶터가 된 문현동·우암동이 중점 사업지역이다. ☎607-4421